# 진도군, 1조8천억 규모 '바람연금' 시대 연다

**기후부, 해상풍력 집적화 1·2단계 선정**

**20조 민간투자 유치…먹거리산업 확보**

**道 "성장단계 도약 중요 전환점" 환영**

진도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진도군은 향후 2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는 물론, 전남 해상풍력의 또 다른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진도 1단계(1천470MW) 및 2단계(2천130MW)를 포함해 인천, 전북 서남권, 보령, 군산 등 총 7곳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신규 및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달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과의 수용성을 확보해 공동접속설비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업 갈등이나 송전선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존 민간 주도 사업보다 신속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받는다.

진도군의 1·2단계 사업 총 시설 용량은 3.6GW에 달한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3-4기와 맞먹는 발전량이다. 단일 단지로 최대 규모인 신안 해상풍력집적화단지(3.7GW)와 비견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지정으로 진도군은 사업이 준공되는 2031년(1단계)과 2033년(2단계)부터 군민들에게 이른바 '바람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약 20조원의 민간시설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연쇄적인 경제 파급효과와 대규모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향후 20년 간 발생할 직접 수익금, 배당금, 지원금은 총 1조8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진도군은 직접 수익금 및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합쳐 총 4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건설사업비의 4%를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인증 수익금(바람연금)은 총 1조4천억원 규모로 진도군 1만6천329세대 기준 가구 당 연평균 436만원(최소 100만원-최대 1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로 경과지인 해남군 역시 총 3천996억원(연 199억8천만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이번 동시 선정은 지난해 10월 사업 신청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다른 지역이 십수년 간 매달렸던 노력을 단숨에 뛰어넘은 이례적인 결과다.

이는 전남도, 진도군,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실이 유관기관과 전방위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지원 의원은 "진도군과 군민, 그리고 송전선이 통과하는 인근 해남군민을 위해서라도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남도·진도군과 함께 연말까지 해당 해역의 군 작전성 협의 및 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안 해역을 3.7GW 규모로 확대하고 진도 해역을 3.6GW 규모로 새로 지정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발표를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안 3.7GW와 진도 3.6GW는 대규모 단일 단지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양시원 기자

## 민주 광주 구청장 경선 일정 확정

**24-25일 남구·북구 1차 예비경선**

**24-26일 동·광산구 국민참여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절차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17일 경선 후보자 설명회를 열어 경선 방식과 선거운동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19-23일 5일 간 공식적으로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자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합동연설회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오전 10시 동구청장, 오전 11시 광산구청장, 오후 2시 남구청장, 오전 3시30분 북구청장 순이다.

경선 방식의 경우 남구청장·북구청장은 24-25일 100%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방식의 1차 예비경선이 실시된다.

다만, 본경선과 결선 일정은 현재 일부 후보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동구청장·광산구청장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24-26일 권리당원 ARS 조사(24-25일)와 안심번호 여론조사(26일)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선거제도 개혁·개헌 촉구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규탄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道, 통합특별법 시행령안 준비 본격화

**보고회서 제정 방향·핵심 과제 점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재정, 교육, 산업 등 특별법 시행령 제정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보고회는 지난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제도 마련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에 꼭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논의했다. SOC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의 범위와 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양시원 기자

## 통합특별시장 후보들 "자치구 재정권 강화 공감"

**구청장協 질의에 회신…세부 방식 차이**

**협의회 "향후 당선자와 정책 협의 방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광주구청장협의회가 질의한 자치구 재정권 강화 필요성 문제에 대해 일제히 공감했다.

16일 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예비후보자들에게 보낸 '자치구 재정권 강화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을 최근 받았다.

첫 번째 질의는 향후 통합시장으로서 자치구로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 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었다.

또 다른 질의는 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지와 향후 통합시장으로서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제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 지였다.

해당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7명과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모두 '동의'로 회신했다.

다만, 후보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추진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재정 지원 방식과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 배분 구조에 대해 구상이 달랐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답변 내용을 토대로 향후 당선자와 정책 협의, 중앙 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 등을 통해 자치구 재정권 강화와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1면 '이병훈 경선 불참'서 계속

그러면서도 이 부위원장은 "다만 여러 후보들로부터 도와달라고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는) 천천히 숙고해볼 것"이라고 추후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위원장은 향후 행보에 대해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으로서 통합특별시에 필요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특별시민의 눈이 되고 잣대가 되겠다"며 "전남·광주 발전을 위해 발굴한 정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 공사대금 / 장비대금 / 전세금 /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 투자금 / 약정금 / 임대료 /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 컴퓨터 /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 판매
임 대 / A/S
T.375-5880